

“자산관리·노후설계 간편하게” 보험업계, 앱 서비스 고도화

캐롯손보 건강 트래킹 기술 결합
KB손보 통합 앱 새단장... UI 개선
교보생명 하루루틴 등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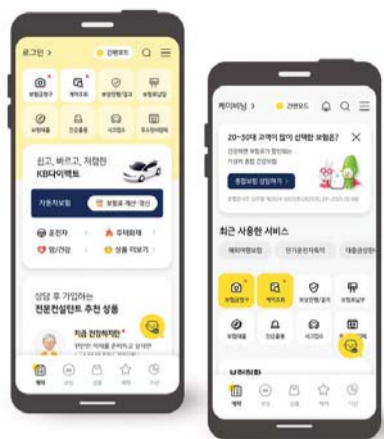
보험업계가 자사 앱 고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보험과 고객 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앱 개선 작업으로 ‘고객 편의성’과 ‘앱 사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4월 모바일 앱을 개편했다. 안전과 건강 트래킹(tracking) 기술을 결합한 개편으로 고객의 앱 참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홈화면이 사라지고 좋은 오늘을 만드는 습관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굿데이’ 탭을 신설했다. 굿데이 탭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해당 탭 화면 상단에는 고객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련도와 실용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 홈화면에서 제공하던 캐롯 굿 드라이브 및 굿워크 서비스와 운세 및 타로 서비스 등도 굿데이 탭에서 만나볼 수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이번 개편은 현재 집중해 만들어진 오늘의 결과가 쌓여 좋은 미래로 이어지게 된다는 캐롯만의 보험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궁극적으로 오늘 잘 견고, 잘



KB손해보험은 지난 6월 자사 통합 앱을 새롭게 개편했다.

운전하는 좋은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6월 앱 통합 1주년을 맞아 ‘KB손해보험 앱’을 새 단장했다. KB손해보험은 작년 6월 업계 최초로 대표 앱과 다이렉트 앱을 하나로 통합한 바 있다. 통합으로 하나의 앱에서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 전반적인 보험계약 및 자산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편은 앱 통합 1주년을 맞아 고객 사용성 분석과 의견 청취를 통해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친숙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개편된 앱의 메인 화면은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최상단에 배치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보험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변경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KB손해보험은 통합 앱 출시 이후 고객 사용성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각 영역별 개선과제를 도출했다”며 “고객의 보험 경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앱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와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앱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앱 고도화로 교보생명 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보험분석, 자산관리, 노후설계, 하루루틴 등의 금융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보다 정교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분석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교보생명 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결하면 모든 보험사에 가입한 전체 보험을 한 번에 모아 보장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노후설계 서비스는 가입한 연금내역과 국민연금 데이터를 계산하고 예상연금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루틴 설정 및 관리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물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커피 값 아끼기 등 건강·금융과 관련해 놓치기 쉬운 루틴을 설정해 건강한 하루를 살도록 좋은 습관을 돕는다.

교보생명은 “이번 앱 고도화를 통해 보험계약이 없어도 앱을 다운받고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간편하게 앱 상에서 다양한 금융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지난 2일 ‘래미안 레벤투스’ 견본주택을 방문한 예비청약자들이 단지모형도와 분양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로또 청약 유명”... 견본주택 구름인파

현장르포

래미안 레벤투스

강남 위치...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공시점 5억대 시세 차익 예상”

“일찍 왔으니까 빨리 청약 상담 받아 보자.”

지난 2일 방문한 ‘래미안 레벤투스’ 견본주택. 오전 10시 오픈과 함께 아파트 청약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레벤투스는 서울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일명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청약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레벤투스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 규모로 조합원과 임대분을 제외한 13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45~84㎡ 총 7타입을 선보이며 ▲45A㎡ 20가구 ▲45B㎡ 6가구 ▲58A㎡ 18가구 ▲58B㎡ 66가구 ▲74A㎡ 12가구 ▲84A㎡ 4가구 ▲84B㎡ 7가구에 입주 가능하다.

도보 1분 거리에는 도곡중학교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자리한다. 학세권이라는 점, 대형 병원이 바로 앞에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분양 주택이 들어서는 2단지 남쪽에서 보면 병원 부속 시설인 장례식장이 보이는 것이 흠이다.

이 아파트에는 청약 신청자가 몰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9일 분양을 시작한 래미안 원퀀타스가

2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5억원 정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강남구 도곡동에 들어서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다.

분양가는 ▲45A㎡ 12억2390만~12억9990만원 ▲45B㎡ 12억2420만~13억3440만원 ▲58A㎡ 16억2790만~17억1990만원 ▲58B㎡ 15억5390만~16억9990만원 ▲74A㎡ 19억9490만~20억9490만원 ▲84A㎡ 22억4270만~22억7680만원 ▲84B㎡ 21억6690만~22억2210만원이다.

예비청약자 이정현(43·서울 송파구 위례동)씨는 “집이랑 가까워서 근처 분양 아파트들을 돌아보는 중이다”라며 “특히 여기는 로또 청약으로 유명해서 와 봤다”고 한다. 이어 이씨는 “완공 시점에 5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많다”며 “둘러보니 좋은 것 같아 청약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래미안 레벤투스는 오는 6일과 14일 각각 1·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지원 기자 jw13@

맥 못추는 비트코인... 6만달러선 ‘위태’

연준 금리인하 시그널에도 하락세
“11월 美 대선 결과에 따라 시세 변동”

이번 주 7만달러를 돌파했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6만1000달러까지 하락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비트코인 호재로 꼽히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불확실해지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할 전망이다.

4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1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9일 7만달러를 회복했지만 이후 하락전환하면서 4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2024 비트코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 사업 육성에 대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의 핵심이 될 것으로 엄청난 부를 모

든 미국인이 혜택을 입도록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21만개로 전 세계 공급량의 1%를 갖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비트코인은 장중 7만달러를 돌파했지만, 이틀 뒤 바이든 정부가 보유한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익명의 주소로 이체 후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했다.

또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식과 마찬가지로 금리 방향성에 따라 투자 수요가 결정된다. 금리인하 가능성에 따라 위험자산의 매력이 높아지면 시중 유동성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리인하 기대에 대한 상승분이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시세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으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 할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이 트럼프 후보와 점차 대등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반(反) 가상자산적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악재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소(SEC)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더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는 암호화폐 기업들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유력하게 봤던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믿음을 흔들었다는 반응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리스가 트럼프와 점차 대등해지며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시장은 해리스의 입장만 바라보는 상황이다”며 “당분간 가상자산 가격은 해리스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래미안 레벤투스’ 견본주택에 방문한 예비청약자들이 84㎡ 타입을 보고 있다.

/전지원 기자

유성·용인 등 8개 단지 6096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6096가구(일반분양 530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장항아테라’,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아테라자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더 트루엘마곡HQ’,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5차’, 경기 용인시 포곡읍 ‘용인둔전역에피트’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대전도안2-5지구 29·31블록에 들어서는

‘도안푸르지오디아텔’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3개동, 총 1514가구 중 전용면적 59~215㎡ 1134가구(29블록 578가구, 31블록 55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2028년 개통 예정) 목원대역·용계역 트램 역세권이며, 2027년 용계초 개교에 따른 초품아 단지가 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 갑천생태공원(2025년 준공 계획)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HL디앤아이하라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일원에서 ‘용인둔전역에피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전용면적 68~101㎡, 총 1275가구 규모다.

/전지원 기자